

논술 (인문계A)

아래의 글을 읽고 논제에 답하십시오.

①

인류문화사의 관점에서 늘상 나를 황홀경으로 몰고 가는 한 시기가 있다. 그것은 유럽 문화의 바탕을 마련한 고대 그리스 로마 시절도 아니고, 이백, 두보, 한유, 유종원이 각기 문재(文才)를 뽐내며 세련된 귀족적·국제적 문화를 꽃피웠던 중국 당대(唐代)도 아니고, 천재와 완전인(完全人)의 시절이라고 할 만한 유럽의 르네상스 시기도 아니고, 서양 르네상스의 한국판이라고 할 만한 영정 조 치하 실학의 전성기도 아니다. 그런 돌출한 문화적 개화(開花)들도 어느 정도 내 마음을 뛰게 하지만, 그것들보다 더 내게 감동을 주는 것은 일본 에도 중기 이래의 난학(蘭學: 네덜란드 문헌들을 통한 서양 학술 연구)과 메이지 시대 이후의 번역 열풍이다. 에도 시대의 난학과 메이지 시대의 번역 열풍이야말로 한문 문명권과 그리스 로마 문명권을 융화시키며 동서 문화 교섭의 가장 빛나는 장면을 연출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18세기 말 스키타 겐과쿠 등이 네덜란드어 해부학서를 해체신서(解體新書)라는 제목으로 번역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시작된 난학은 의학에서 화학, 물리학, 천문학, 군사학 등으로 영역을 넓혀 갔다. 당시 동아시아는 지구 위에서 유럽인들의 발길이 뜸한 유일한 지역이었다. 일본인들의 뛰어남은 유럽 문화의 전 지구화를 마무리했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게걸스럽게 흡수하면서도 한자라는 동아시아 문명의 공통 유산 속에 완전히 녹여버렸다는 데에 있다.

일본과 서양의 본격적인 문화적 접촉은 18세기에 들어 막부(幕府)의 명령으로 나가사키의 통역사들이 네덜란드어 사전을 편찬함으로써 개막됐다. 막부가 있던 에도의 난학자들이 나가사키 통역사들의 도움을 받아 개화시킨 난학의 요체는 번역이었다. 이들의 번역 작업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오늘날 예컨대 영한사전이나 불한사전을 편찬하는 한국의 사전 편찬자들에게는 영일사전이나 불일사전과 같은 준거 틀이 있다.

그러나 나가사키의 통역사들이나 에도의 난학자들에게는 그런 준거 틀이 없었다. 그들은 네덜란드어의 한 단어를 일본어로 번역하기 위해, 그 단어의 어원, 변천과정, 당시의 쓰임새 등 전 역사를 조사한 뒤, 그에 상응한다고 판단된 한자들을 골라내 이를 조립해야 했다. 번역 대상이 네덜란드어로 된 책이라고 하더라도 그 책 자체가 다른 유럽어의 번역본인경우도 있었으므로, 통역사들이나 난학자들은 어질프게나마 유럽의 다른 언어들과 그리스어, 라틴어 등의 고전어에까지 기웃거리려 했다.

일본이나 동아시아에 비슷한 개념의 어휘들이 있을 경우엔 문제가 그리 크지 않았지만, 그들이 옮기려고 한 네덜란드어 단어들 가운데는 일본이나 동아시아의 문화적 전통에는 낯선 개념들이 태반이었으므로 그들의 고생은 더 컸다. 그것은 극도의 열정과 재능이 필요한 일였고, 통역사들과 난학자들은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해냈다.

메이지 시대 이래 일본어로 번역된 유럽의 어휘들은 그 대부분이 한자를 매개로 해 한국어 어휘에 흡수되었고, 또 그 상당량은 한자의 종주국인 중국으로 역수출되었다. 예컨대 이성(理性), 철학(哲學), 사회(社會), 전통(傳統), 종교(宗教), 현실(現實) 등의 단어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익숙한 단어들인지 생각해보자. 우리는 독자적으로 서양 문화를 받아들여 우리 언어체계 속에 녹여낼 기회를 얻지 못했다. 우리는 우리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든, 일본 사람들의 노력으로 한자어화된 서양의 문화를 빌려 쓰는 길을 걸었고, 메이지 시대 이래 일본 열도에서 만들어진 무수한 신조어들은 한자라는 매개를 통해 즉각 한국어에 흡수됨으로써 한국어의 어휘를 배가시켰다.

②

앞드려 아뢰입니다. 자질이 부족하고 배운 것도 별로 없는 신이 성은을 입고도 감히 소장(疏章)을바치는 것이 매우 외람된 일인 줄은 잘 압니다만, 구구하게 올리는 말씀은 모두 나라를 걱정하는 소신의 심혈에서 나온 것이오니 부디 밝게 살펴주소서.

서양의 풍기를 쓸어내는 일이 시급합니다. 서양의 사술(邪術)은 비상(砒霜)이나 짐새의 독과 같아서 한번 입에 가까이하면 오장이 파열되고 온몸의 맥이 들끓어 다시는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서양 오랑캐들이 사람들 사이에 하루를 섞어 있으면 하루의 화가 있고, 이들을 섞어 있으면 이들의 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 수 년 이래로 세도(世道)가 날로 어두워지고 정형(政刑)이 날로 해이해져서 괴상한 모양의 선박들이 강해(江海) 주변을 왕래하는데도 관리들이 검문하지 않고, 도깨비 같은 자들이 계곡 사이에 몰려 있는데도 관리들이 잡아들이지 않은 채 날이 가고 달이 바뀌니, 그 무리가 점점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험난한 길을 거쳐 우리나라에까지 온 이유는 물화를 교역하여 생계로 삼고 이를 통해 장차 우리를 유인하여 교류의 계제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신이 살펴보건대, 저들이 들여오는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모두 기괴한 기술로 마음을 현혹하고 풍속을 해치는 도구일 뿐, 민생의 일용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저들의 음식을 먹고 저들의 옷을 입으며 저들의 물건을 사용하면서 저들의 학술과 문화는 끊고자 한다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서양 물건은 저들이 공납(貢納)한다 해도 받아서는 안 되거늘 하물며 우리 백성들의 의식(衣食)의 자원을 몰래 끌어다가 서양 물건들과 바꿔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백성은 오랫동안 순박한 풍속을 지키며 전통을 보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서양 오랑캐들이 이처럼 제멋대로 왕래하고 물건을 팔며 민간에 섞여 거처하게 된 이래, 온 백성이 곤궁해지고 나라는 나라가 아니게 되었으며 예의의 민족이 재화와 여색에 달려들게 되었습니다. 서양 오랑캐는 사람 꼴을 한 금수(禽獸)입니다. 그들은 부자, 군신, 부부, 장유의 질서와 예악, 문물, 절의, 복식의 융성함을 등에 박힌 가시나 눈에 생긴 못처럼 여깁니다. 우리가 쇠약해진 틈을 타서 방자하게 호령하기를, ‘어찌 너희의 거추장스러운 복식을 버리고 남녀 상하의 구분을 없애서 우리의 간편함을 따르지 않느냐’고 합니다. 처음에는 주저하던 우리 백성들도 점차 예의와 엄치를 버리고 문란하게 휩쓸려 저들의 문화에 부화뇌동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들이 우리를 돼지로 길러 거세해도 성낼 줄 모르고, 소로 길러 코를 뚫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게 될 것이니, 천성이 바뀌어 관습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르고서 어찌 온 천하가 금수로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하루속히 엄중한 금령을 선포하여, 지금 이후로는 서양 물건을 집에서 쓰거나 저자에서 파는 자는 모두 중벌을 받게 하여서 저들의 문화가 전파되는 길을 끊고 민생의 근본을 넉넉하게 하소서. 애군우국(愛君憂國)의 간절함을 이기지 못하여 성명(聖明)에 힘입어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입니다. 통촉하소서.

③

매 기(期)에 ‘문화요소’들이 서로 결합하여 문화 현상을 생성하고 이로부터 사회문화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를 가정하자. 이 사회에는 기존 문화요소가 m 단위 존재하고 있었는데, 외부로부터 신규문화요소가 n 단위 유입되었다. (m 과 n 은 2보다 큰 짝수이고, n 은 m 보다 작다.) 이제 이 사회에서는 $m+n$ 단위의 문화요소들이 각각 무작위로 일대일 결합하여 사회문화 가치를 창출한다. 기존 문화요소끼리 결합할 경우는 1의 가치가, 신규 문화요소끼리 결합할 경우는 e 의 가치가, 그리고 기존 문화요소와 신규 문화요소가 결합하는 문화 간 혼종의 경우는 h 의 가치가 창출된다. (e 와 h 는 0보다 큰 실수이다.)

현재 기(期)에 기존 문화요소의 각 단위가 창출하는 가치의 기댓값이 신규 문화요소의 각 단위가 창출하는 가치의 기댓값보다 크면, 다음 기에 기존 문화요소는 두 단위 증가하고 신규 문화요소는 두 단위 감소한다. 반대의 경우, 신규 문화요소가 두 단위 증가하고 기존 문화요소가 두 단위 감소한다. 두 가지 문화요소들이 창출하는 가치의 기댓값이 동일하면, 사회는 기존 문화요소와 신규 문화요소의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안정 상태에 이른다.

I. ①과 ②를 활용하여 창조적 문화 혼종에 관해 논술하시오. (75점)

II. ③에 관한 다음 문항들에 모두 답하시오. (25점)

(가) 이 사회에서 신규 문화요소의 단위 수가 n 보다 작아지지 않을 조건을 m, n, h, e 사이의 관계로 표현하시오. 그리고 e 가 1보다 크지 않고 h 가 1보다 작을 때, 신규 문화요소가 사회에 유입되어 시간이 지나도 계속 존재할 수 있을지 논하시오.

(나) 이제 $m=12, n=2, h=2, e=0.6$ 이라고 가정할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존 문화요소와 신규 문화요소의 단위 수가 어떻게 변할지 분석하고, 이 사회가 안정 상태에 이를 수 있을지 논하시오.

※ 유의 사항

1. 답안에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을 하지 말 것.
2. 답안에 제목을 달지 말 것.
3. 제시된 글에서 그대로 옮겨 적지 말 것.
4.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I은 1,000자(±50자)로 하고, II는 자수에 제한 없이 쓰되 답안지의 테두리선을 벗어나지 말 것.

Copyright© 넵툰. All rights reserved.

